

믿 정 실	음 진 천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특별 야의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우란분절) 천도 기도 입재
 다섯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우란분절) 천도 기도 회향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지역 범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고통이고,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도 고통이고,
 많은 사람 가운데 혼자 머무는 것도 고통이네.
 운회의 먼 여행길은 고통이니
 자유길에서 쉬도록 하라.

It is painful to leave the world; it is painful to be in the world; and it is painful to be alone amongst the many. The long road of transmigration is a road of pain for the traveler: let him rest by the road and be fre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최근 10년간 종교인구 변화

“불교성향 남성이 종교인구 성장 주도” : 올해 44.3%...1994년 대비 10.4% 증가 : 청소년 개신교 ‘최고’...불교 ‘증가추세’

“1997년 이후 종교 변화 불교”

우리나라의 종교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0일 개최한 제 5차 포교정책연찬회에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연구위원이 발표한 ‘종교현황과 불교포교정책’에 따르면 1984년 43.8%였던 종교인구는 1989년 49%, 1997년 46.9%를 기록했다가 최근 53.5%까지 성장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개신교 소폭 증가, 불교 급속 성장이 특징이다. 일반인이 불교에 거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한 불교인구가 드디어 과반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포교정책도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윤승용 연구원이 인용한 한국갤럽의 자료는 1984년, 1989년, 1997년 <종교실태 조사보고서> 등이다.

- 종교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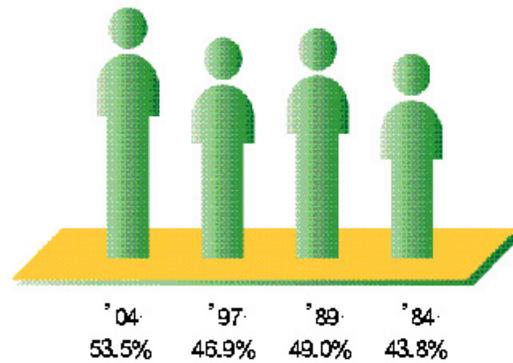
1984년 종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43.8%를 차지하며 꾸준히 성장했지만 1989년(49%)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97년(46.9%)까지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외환위기(IMF) 이후 종교인구는 증가하기 시작, 2004년에 절반이 넘는 53.5%를 기록했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1984년 전체인구의 18.8%였던 불교는 1989년 20.9%, 1997년 18.3%, 2004년 24.4%로 증가하며 종교인구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신교는 17.2% 19.2% 20.4% 21.4%로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였다. 천주교는 5.7% 7.0% 7.4%에서 2004년 들어 6.7%로 오히려 감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1997년에 불교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타 종교인에 비해 불자들의 종교적 확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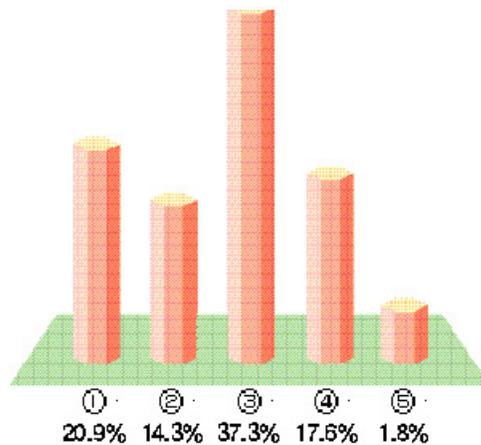
남성 종교인구의 증가도 특이한 점이다. 1984년 종교인구중 남성의 비중이 33.9%, 여성이 증가했다. 윤승용 남성이 크게 주도하고 유동적인 종교성향을

불교인구가 전체 40세 이상 중장년층에 있다. 18~24세 청소년의 개신교 23.9%, 천주교

현재 종교를 믿고 있다



☒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여유가 없다
- ② 종교에 대한 불신
- ③ 관심이 없다
- ④ 자신을 믿어서
- ⑤ 가족의 반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단위:%)

	'04	'97	'89	'84
불교	24.4	18.3	20.9	18.8
개신교	21.4	20.4	19.2	17.2
천주교	6.7	7.4	7.0	5.7
기타종교	0.9	0.9	1.9	2.1
비종교인	46.5	53.1	51.0	55.8

종교별 연령비율('04년/'84년) (단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종교
18~24세	14.6/8.8	23.9/20.1	6.6/4.7	0.0/
25~29세	15.1/11.6	22.7/19.9	5.7/5.5	1.4/
30~39세	20.5/17.0	22.5/19.0	6.1/6.5	0.2/
40~49세	26.6/28.0	21.1/13.5	8.5/5.2	1.1/
50세이상	35.1/28.5	18.8/13.1	6.4/6.2	1.6/

종교별 신앙시기 (단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종교
9세 이하	27.2	37.3	27.5	7.9
10~19세	14.3	19.6	12.8	0.0
20~29세	28.3	19.8	20.9	33.8
30~39세	18.6	15.1	20.2	52.0
40~49세	8.0	5.7	15.8	6.4
50세 이상	3.6	2.4	2.8	0.0

종교별 다른종교 경험율 (단위:%)

	'04	'97	'89	'84
불교	13.2	17.4	19.3	16.3
개신교	14.5	9.8	18.3	14.9
천주교	28.1	25.1	22.9	23.2

52.7%였던 반면 2004년에는 남성 44.3%로 연구위원은 “최근 종교인구의 성장은 불교 성향의 있다”며 “남성의 특징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띠고 있다”고 말했다.

- 연령별
종교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집중되고, 청소년들의 경우 개신교를 훨씬 많이 믿고 경우 2004년에 불교신도가 14.6%에 불과한 반면 6.6%로 조사됐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바뀌는데, 30~39 세는 불교가 20.5% 개신교가 22.5%를 차지했으며, 40 대는 26.6% 대 21.1%, 50 대는 35.1% 대 18.8%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65 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점에서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불교도가 많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윤 위원은 “1984 년 10 대 청소년의 경우 불교가 8.8%, 개신교가 20.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30,40 대 사회주도 연령층의 종교인구 증가는 종교문화 안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교육.직업별

종교별 학력 수준을 비교하면 불교는 저학력층에, 개신교는 고학력층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서 보면 초등졸 이하는 불교가 43.8%를 개신교가 11.0%를 차지했다. 중졸은 24.7%(불교): 20.5%(개신교), 고졸은 24.8%: 21.0%, 대학재학 이상은 15.6%:26.6%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들어 고학력화가 되면서 종교 전반적으로 고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소위 사회주도층에 대한 포교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의 직업을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등 1 차산업 종사자가 불교 38.5%, 개신교 9.1%로 나타나 전통을 중시하는 공동체 단위에서는 아직 불교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영업의 경우 불교와 개신교 비율이 20.9%(불교) : 23.4%(개신교), 블루칼라 22.6% : 20.6%, 화이트칼라 18.0% : 21.4%, 가정주부 34.1% : 26.0%로 각각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는 14.6% : 22.6%로 개신교 인구가 더 높았다.

- 지역분포

지역별로는 서울이 15.7%(불교) : 30.8% (개신교)로 개신교가 두 배에 가까운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 17.7% : 6.3%, 강원 20.6% : 16.3%, 충청 24.2% : 2.6%, 호남 18.8% : 17.9%, 경북 23.5% : 11.1%, 부산.경남 44.4% : 11.7%로 각각 조사됐다.

주목되는 점은 호남지역에서 불교의 성장세다. 1984 년 11.9%(불교):21.3%(개신교) 였던 비율은 1989 년 14.0%:25.6%, 1997 년 10.0%:24.4%을 기록, 개신교가 불교보다 2 배 이상의 신도를 확보했다. 반면, 2004 년 조사에서는 불교가 18.8% 개신교가 17.9%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불교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지역 포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타

신앙을 선택한 나이가 불교는 9 세 이하가 27.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기에 불교를 선택한 사람은 14.3%에 그쳤다. 30 대에 들어서도 불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는 19 세 이하의 나이에 56.9%가 선택한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불교계의 포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종 경험자는 전체 16.2%로, 천주교 28.1% 개신교 14.5% 불교 13.2%가 타종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의 28.1%가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의 개종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불자의 개종율이 높았다.

한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37.3%) 종교에의 불신(14.3%)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1.8%)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윤승용 연구위원은 “1997 년 이후 불교가 종교성장을 주도하면서 최대종교로 자리했다”며 “사회적 변화에 맞는 포교정책과 종교적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 깨달음은 대자유이며 온전한 만족이다”

이 조사는 65 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점에서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불교도가 많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윤 위원은 “1984 년 10 대 청소년의 경우 불교가 8.8%, 개신교가 20.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30,40 대 사회주도 연령층의 종교인구 증가는 종교문화 안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교육.직업별

종교별 학력 수준을 비교하면 불교는 저학력층에, 개신교는 고학력층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서 보면 초등졸 이하는 불교가 43.8%를 개신교가 11.0%를 차지했다. 중졸은 24.7%(불교): 20.5%(개신교), 고졸은 24.8%: 21.0%, 대학재학 이상은 15.6%:26.6%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들어 고학력화가 되면서 종교 전반적으로 고졸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소위 사회주도층에 대한 포교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의 직업을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등 1 차산업 종사자가 불교 38.5%, 개신교 9.1%로 나타나 전통을 중시하는 공동체 단위에서는 아직 불교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영업의 경우 불교와 개신교 비율이 20.9%(불교) : 23.4%(개신교), 블루칼라 22.6% : 20.6%, 화이트칼라 18.0% : 21.4%, 가정주부 34.1% : 26.0%로 각각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는 14.6% : 22.6%로 개신교 인구가 더 높았다.

- 지역분포

지역별로는 서울이 15.7%(불교) : 30.8% (개신교)로 개신교가 두 배에 가까운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경기

17.7% : 6.3%, 강원 20.6% : 16.3%, 충청 24.2% : 2.6%, 호남 18.8% : 17.9%, 경북 23.5% : 11.1%, 부산.경남 44.4% : 11.7%로 각각 조사됐다.

주목되는 점은 호남지역에서 불교의 성장세다. 1984년 11.9%(불교):21.3%(개신교)였던 비율은 1989년 14.0%:25.6%, 1997년 10.0%:24.4%을 기록, 개신교가 불교보다 2 배 이상의 신도를 확보했다. 반면, 2004년 조사에서는 불교가 18.8% 개신교가 17.9%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불교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지역 포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신앙을 선택한 나이가 불교는 9 세 이하가 27.2%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기에 불교를 선택한 사람은 14.3%에 그쳤다. 30 대에 들어서도 불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는 19 세 이하의 나이에 56.9%가 선택한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불교계의 포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종 경험자는 전체 16.2%로, 천주교 28.1% 개신교 14.5% 불교 13.2%가 타종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의 28.1%가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의 개종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불자의 개종율이 높았다.

한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37.3%) 종교에의 불신(14.3%)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1.8%)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윤승용 연구위원은 “1997년 이후 불교가 종교성장을 주도하면서 최대종교로 자리했다”며 “사회적 변화에 맞는 포교정책과 종교적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교적 효사상의 의의

“부모와 자식은 상하종속 아닌 호혜평등 관계”: ‘지은보은’ 이념은 합리적 효 윤리

가정은 지금까지 사회의 ‘거대한 완충지대’라고 불리어 왔다. 가정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부상을 입고 피로에 지쳐 돌아오는 장소였던 것이며, 날마다 아찔해져 가는 환경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 버트란드 러셀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모든 제도 가운데서 가족만큼 심하게 해체된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10 중 9가 양쪽에 대해 서로 불행의 원천이며, 100 중 99가 적어도 어느 한 쪽에 대해 불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의 발달로 수정란의 인공삽입, 시험관 아기 등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가족 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는 아마도 ‘낳아준 부모’와 ‘양육 전문의 부모’가 병존하게 될 것이고,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능력있고 비용이 저렴한 ‘양육전문부모’를 선전하는 광고가 쉽게 눈에 떨 것이라고 예측한다.

어쨌든 전통적인 가정과 가족의 개념은 많이 변했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건적이고 일방적이며 수직적인 효 윤리는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고, 반면에 자유와 평등에 바탕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효 윤리는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요컨대 미래 사회에서는 규범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의 효 윤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효 윤리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교사상 속에서 그러한 자발적이고도 합리적인 효 윤리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은(知恩)-보은(報恩)의 사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효 경전으로 잘 알려진 <부모은중경>에서는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에 대해 설한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은혜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대지(大地)보다도 무거운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대승본생심지관경>은 이에 대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일 겁을 지내는 동안, 매일 세 끼니마다 자기의 몸을 베어 부모님께 공양한다 할지라도 단 하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설한다. <불설효자경>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봉양함에, 감로처럼 맛있는 온갖 음식을 그 입에 공급하며, 천상의 음악으로 그 귀를 즐겁게 해 드리며, 최상의 아름다운 의복으로 그 몸을 빛내고, 다시 죽는 날까지 양 어깨에 부모를 업고 두루 사해에 다닌다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고 설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진리(dharma)에 대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러한 보편적 다르마를 중시하는 사상적 전통은 마침내 “일체의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성품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열반경>의 종교사상으로 승화된다. 그리하여 불교의 전통 속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도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처라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의 윤리도 봉건적인 상하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민주적인 호혜평등(互惠平等)의 관계 위에서 성립된다. 호혜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합리적 윤리는 무엇보다도 초기경전의 하나인 <싱갈로바다-숫탄타(Singalovada-Suttanta)>의 가르침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경전은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지키고 베풀어야 할 다섯 가지 덕목에 대해 설하고 있다. 먼저 자식이 부모에 대해 지켜야 할 덕목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 주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부모를 부양하겠다 •부모의 일을 내가 하겠다 •혈통을 이어가겠다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겠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의 다섯 가지다. 한편 부모 역시 자식에 대해 다섯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즉 •자식으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며 •착한 일을 하도록 간곡히 타이르며 •자식에게 기술을 익혀 직업을 갖게 하고 •적합한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적당한 때에 가산을 상속시켜야 한다. 이 가르침 속에는 분명 부모와 자식 쌍방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있게 설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상호 평등의 관계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더 이상 봉건적 관계가 아니며 점점 더 민주적인 상호평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불교적 효 윤리는 이러한 현대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효 윤리를 모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교 효 윤리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지은-보은의 사상은 그 실천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지은-보은의 이념에 바탕한 불교의 효사상은 가족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사회, 인류, 중생에까지 나아가 필경에는 인류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태도

“극단적 배타주의는 옳지 않은 생각”

부처님이 날란다 바바리나 숲에 머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장고행자(長苦行者) 니간타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이 그에게 ‘그대의 스승은 어떤 방법으로 악업을 짓지 않도록 가르치는가’를 물었다. 그는 ‘몸과 입, 생각으로 잘못하면 그것을 벌주는 것(苦行)으로써 악업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었다.

“나는 몸과 입이 잘못을 하더라도 고행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으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실천하라고 가르친다.”

그는 부처님과 대화의 통해 큰 깨우침을 받고 스승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말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니간타의 재가제자 우팔리거사가 있었다. 우팔리는 자기가 부처님을 찾아가 대론을 해서 행복을 받고 오겠다고 했다. 니간타는 ‘자네가 가서 행복을 받으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면 만류했다. 우팔리는 자신 있다면서 나섰지만 그 역시 부처님과 대론에서 설복 당하고 말았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하도록 삼보에 귀의하는 재가신도가 되겠나이다.”

“거사여 그러면 됐다. 그러나 잠자코 실천할 뿐 굳이 삼보에 귀의한 것을 공포할 필요는 없다. 훌륭한 사람은 오직 선을 행하느니라.”

“부처님. 참으로 기록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깃대를 들고 돌아다니며 자랑할 텐데 ‘잠자코 실행하고 공포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시어. 저는 앞으로 장고행자 니간타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부처님 제자만 오도록 하겠나이다.”

“거사여 그러면 아 되니 지니가타드으 오래도아 너의 존경을 받았다 만일 저들이 오거든 옛날과 같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보시하여 큰 기쁨을 얻으라'고 말한다. 다만 '바르게 정진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만 말할 뿐이다." -중아함32 권133 경 <우팔리경(優婆離經)> -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인도는 종교와 사상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었다. 경전에 의하면 육사외도(六師外道) 외에도 92종의 사견(邪見)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종교와 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깎아내는 일에 몰두했다. 심한 경우는 음모와 살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교가 겉으로는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절대적 신념' 때문이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세우는 주장을 '진리'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한다는 독단을 만들어낸다. 일부 종교의 극단적 선교주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극렬한 배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일부 종교에 대해 '외도' 또는 '사견'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없다. 이 경전에서 보듯이 보시는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나 신에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식의 망언도 하지 않는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 불교의 생각이다. 극단적 배타주의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불교의 위대성이자 역사적 전통이기도 하다.

불교 교리: 마하반야바라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의 첫 머리는 '마하반야바라밀다'로 시작된다.

'마하반야바라밀다'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 뜻을 낱말 하나하나로 풀이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마하'는 산스크리트어 'maha-'의 중국어 음역이다. '큰', '위대한'이란 뜻을 갖고 있다. 크다(大), 많다(多), 수승하다(勝)로 한역한다. 또 존칭으로도 쓴다. 부처님 10대 제자중 한 명인 가섭은 마하가섭이라고도 불렀다.

'반야'는 팔리어 'pan-n-a-'의 중국어 음역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prajna'다. 지혜(智慧), 혜(慧), 명(明)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다. 법의 실다운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서 반야를 얻은 사람은 성불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한다.

바라밀다는 'pa-ramita-'의 음역이다. 도피안(到彼岸), 도무극(到無極), 사구경(事究竟)으로 번역한다. 도피안(到彼岸)은 '저 언덕을 건너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저 언덕은 지혜의 언덕을 말한다.

결국 '마하반야바라밀다'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란 뜻이다.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야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지혜의 배를 타고 가야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지혜의 힘으로 모든 존재가 공(空)이라는 깊은 이치를 사리불 존자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22일 (음력 7월 7일)부터 양력 8월 29일 (음력 7월 14일)까지 백중 (우란분절) 7일 간 선망부모, 일가친척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이날 신도님들과 인연있는 모든 영가들은 물론이고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7일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 오만원)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분은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6개월간 워싱턴 대학 법대에 교환교수로 세인트루이스에 오셨던 법성 이상철 거사님 가족이 8월 말경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동안 법성 거사님, 정심행 보살님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은 세인트루이스에 계시는 동안 불국사에 깊은 애정과 해외포교 실천은 물론이고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법성 거사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예전에 교편을 잡고 계셨던 육군 사관학교 교수였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한국에서 국제 포교 활동을 하는 불국사의 산하 신행 단체의 하나인 불국회와도 인연을 맺어서서 지속적으로 불국사와 인연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사님 가족과 6개월의 짧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불국사 가족들은 8월 특별법회 (셋째주)를 거사님 가족들과의 송별회 법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카누를 타러 가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메라딕 동굴로 행선지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신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신 신도님들은 총무님께 연락 바랍니다.
- 불국사 콜롬비아 법등 소식: 법회를 할 수 있는 법당 내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당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매주 교리 법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토요일에 불국사 주지스님이 콜롬비아 법등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콜롬비아 법등에서 불교 교리 법회를 가지는 신도님들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본 사찰인 불국사 일요 정기 법회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운영 회의를 걸쳐서 최종 법회 시간 결정을 하겠지만 콜롬비아 법등 교리 법회 일정은 불국사 법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불국회 소식: 10월 7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김숙자 경기 도살풀이 제자 발표회”에서 불국회가 바라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불국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불자님들은 꼭 표를 사서 관람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표는 불국회로 연락 바랍니다. (꽃다발 사양 안합니다.)
앞으로 불국회가 개최하는 가을 봉사는 예년대로 양로원인 안양원에서 하는 김장 봉사가 있습니다. 김장비 동참이나 겨울 김장을 담그는 봉사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80번 입술생 문장우, 181번 무술생 김형숙, 182번 보경화 양희정, 183번 무진생 김민지, 184번 신미생 김동건, 185번 계묘생 류웅렬, 186번 기유생 이은정, 187번 류소영, 188번 갑신생 (아직 아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신규 신도회 동참자: 1016번 무술생 김형숙 가족, 1017번 계묘생 류웅렬 가족
- 앞으로 불국사의 또하나의 상징이 될 불국사 정문앞 정원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불사 및 처마를 덮대 (Awning)는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지붕 불사 동참자: 수정화 이금주, 신행화 이묘경씨 친정 어머니 성불하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

